

<p>민 지 실</p> <p>음 혜 천</p>	<h1>BUDDHANARA</h1>	<p>FAITH WISDOM ACTION</p>
---	---------------------	---

우리는 부처님 제자들이다. 스스로 타오르며 역사를 밝힌다.



매주 일요일: 정기 법회 11시

첫째주 일요일 11시 초하루 기도 법회

둘째주 일요일 11시 인등 기도 법회

셋째주 토요일 11시 전법 기도 법회

넷째주 일요일 11시 백중 천도 기도 법회

부처님 제자들의 참선 모임

- Buddha's Disciples Zen Meeting -

Every Saturday 10am. (매주 토요일 10시)

Program: Sitting & Walking Meditation, Da-do (Tea Ceremony)

불국사 후원회 (불국회)

-법회는 한국에서 매달 있습니다. 한국에 계시면서 후원회 법회 참가를 희망하시는 불자님 들은 미국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불국사나 한국에 있는 불국회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이달의 법구경: - 온 세상이 불타고 있는데

어찌 웃음이 있겠나,

어찌 즐거움이 있겠나.

칠혹 같은 어두움 속에 떨어진다면

어찌 등불을 구하지 않겠나?

How can there be laughter, how can there be pleasure, when the whole world is burning? When you are in deep darkness, will you not ask for a lamp?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용맹정진하여 불국정토 성취한다.

불국사 (Buddhanara Temple)

www.buddhanara.net

874 Berick Dr. St. Louis, MO 63132

☎ (314) 993-0185; 239-9068

중단 소식: 조계종, 아프가니스탄 한국인 인질 사태에 대한 논평 발표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장 지관스님)은 2일 아프가니스탄 한국인 인질 사태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다. 조계종 대변인 승원스님(총무원 기획실장)은 “탈레반에 의해 피랍된 스물세 명의 한국인 봉사단원의 무사 귀환을 온 국민과 함께 기원해 왔다.”며 우리종단은 무고한 희생자와 그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또 “이번 사태의 원만한 해결과 인류의 평화를 위해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미국 정부도 좀 더 적극적인 관심과 책임있는 노력을 하여 줄 것을 기대한다.”며 “우리 종단은 이번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희망하며 우리 국민들이 사태의 충격에서 벗어나 하루 빨리 정상심을 회복하기를 기원한다.” 밝혔다.

아래는 논평문 전문

아프가니스탄 한국인 인질 사태에 대한 대한불교조계종의 논평

우리 조계종단은 지난 7월 19일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에 의해 피랍된 스물세 명의 한국인 봉사단원의 무사 귀환을 온 국민과 함께 기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두 사람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우리 종단은 무고한 희생자와 그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우리 종단은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해왔듯이 한국인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조속한 석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더 지혜롭게 탈레반과 관계 국가들을 설득하여 사태의 평화적 해결에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사태의 원만한 해결과 인류의 평화를 위해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미국 정부도 좀 더 적극적인 관심과 책임있는 노력을 하여 줄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종단은 이번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희망하며 우리 국민들이 사태의 충격에서 벗어나 하루 빨리 정상심을 회복하기를 기원합니다.

불기 2551(2007)년 8월 2일

대한불교조계종 대변인 승원합장

8월의 경전 공부:

아미타경

“누구든 극락왕생 할 수 있어”

〈아미타경(阿彌陀經)〉은 아미타불의 극락세계에 대해 설해 놓은 경이다. 흔히 말하는 정토신앙의 대의가 설해져 있다. 부처님이 사위국 기원정사에서 사리불을 상대로 서방정토 아미타불 극락세계의 공덕장엄을 말하고 아미타불의 명호를 일념으로 부르면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다는 방법을 설해 놓은 경으로, 극락세계에는 한량없는 광명이 영원히 비치고, 그 영원한 목숨을 누리는 아미타불이 상주하여 법을 설하고 있는데 이곳에 왕생하기를 발원하여 아미타불을 부르고 생각하는 칭명염불(稱名念佛)에 전념할 것을 권하고 있다. 경의 구성은 매우

간단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지경(四紙經)이라는 별명이 있었을 정도로 경 전문이 길지 않으며, 사언구(四言句)로 된 문장이 대부분이다.

처음

이 세상에서 서쪽으로 10만억 불토를 지나면 극락세계가 있다고 소개하면서 그곳에는 땅과 나무, 연못, 누각, 난간, 층계 등이 모두 칠보로 되어 있으며 못마다 연꽃이 피어 있고 아름다운 새들이 하루에 여섯 번씩 법을 설하는 노래를 하고 있다 하였다.

이 경은

부처님이 스스로 누구의 질문을 받지 않고 직접 설해준 무문자설(無問自說)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경이다. 이 경이 중국에서 한역된 것으로는 3역이 있었다. 모두 1권으로 번역된 구마라습 역본과 구나발타라 역본 〈소무량수경〉 그리고 현장이 번역한 〈칭찬정토불설수경〉이다. 이중 구나발타라가 번역한 본은 소실되어 일부분만 전해진다. 일찍이 일본에서 정토삼부경이라 하여 〈무량수경〉, 〈관무량수경〉과 함께 이경을 정토신앙의 소의경으로 취급하여 왔다. 그런데 〈무량수경〉과 〈아미타경〉의 범어 이름이 똑같이 〈수카바티부하(Sukhavativyuha)〉이다. 그래서 무량수경이 2권으로 되어 양이 많으므로 대경(大經)이라 하고 〈아미타경〉을 소경(小經)이라 하였다.

극락세계는 중생이 동경하는 영원한 향수가 깃든 이상세계다. 생사의 고통을 받고 있는 사바세계의 예토(穢土) 중생이 생사의 고통이 없는 영원한 안락을 누리는 곳으로 가고 싶다는 것이 정토(淨土)의 염원이다. 이 정토의 염원이 신앙심으로 일어나 죽고 난 후에 정토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내세위주의 신앙을 정토신앙이라 한다. 이 정토신앙의 유형도 세 가지가 있다. 미륵보살이 있는 도솔천을 정토로 보는 미륵신앙 계통의 정토가 있고 동방의 아축불이 있는 묘희국(妙喜國) 정토가 있다. 극락세계는 서방정토라고 방위를 가지고 말하기도 하며, 극락을 안양(安養) 또는 낙방(樂邦)이라고도 한다. 극락을 서방정토라고 하는 것은 <안락집>에 의하면 서쪽은 해가 지는 곳이며 중생의 죽음을 나타내는 방위이다. 해가 뜨는 동쪽을 생(生)으로 보고 반대 방향인 서쪽을 사(死)로 본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후의 극락왕생을 비는 이유가 이러한 상징적 의미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선리적(禪理的)으로 해석할 때는 모두가 유심정토(唯心淨土)라 시공을 초월한 세계가 된다. <아미타경>에서는 누구든지 아미타불의 칭명염불로 극락왕생을 할 수 있다고 가르친다. 가장 쉽게 부처님 나라로 갈수 있는 길을 보여 준 경이다. 고래로 많은 주석서를 남겨 무려 270 여부가 나왔다. 중국의 저술로는 승조(僧肇)의 <아미타경의소>와 천태지의(天台智)의 <아미타경의기>, 규기(窺基)의 <아미타경소>, 지옥(智旭)의 <아미타경요해>가 4 대소라고 평가되는 유명한 소이다. 우리나라의 원효스님이 저술한 <아미타경소>도 현존하고 있다.

조계종 승가대학원장

고통이 극복된 상태, 열반

“욕망의 불길 사위어 버린 행복의 경지”

인생은 고통이고 고통의 원인은 무지다. 그러나 고통과 무지는 하나의 현상일 뿐 영원불변의 무엇이 아니다. 그것은 분명 타파될 수 있는 무엇이다. 붓다는 무지가 타파되어 고통이 극복된 상태, 그것을 열반(nirvna)이라 불렀다. 산스크리트 ‘니르바나’에서 니르(nir)는 ‘없다’, ‘아니다’, ‘없어지는(out)’ 등의 뜻을 갖는 접두어이고, 바나((vna)는 ‘불꽃’, ‘불어 끄다(to blow)’ 등으로 해석된다. 그러니 말뜻으로 보면 열반이란 ‘불어서 끄다, 불어서 꺼버린 상태, 불꽃이 꺼진 상태’의 뜻을 갖는다.

여기서 불꽃은 앞서 말한 소유와 영원을 향한 욕망을 상징한다. 물론 그 욕망이란 불길의 연료는 무지다. 그러니까 열반이란 무지라는 연료가 더 이상 공급되지 않아 욕망이란 불길이 사위어 버린 상태를 의미한다. 욕망의 불길이 꺼졌다면 그곳엔 더 이상 고통이 없고 고통이 없는 상태란 바로 행복을 의미한다. 열반이란 현대의 언어로 말하자면 행복이다.

“춘다여, 이 세상은 원래 무상한 것이다... 나는 진실을 터득하여 일체의 고통에서 벗어났다. 그러므로 내겐 이제 노병사(老病死)가 모두 없다... 춘다여, 이것이 모든 여래의 땃땃한 법이다.”

“내 이제 진리로 그대들에게 말하노라. 이제 나는 나의 사부대중을 위하여 열반의 덕을 말하리라. 비구들이여, 열반에는 네 가지 덕이 있으니, 영원함(常)과 행복(樂)과 참나(我)와 청정함(淸淨)이다. 여래의 법신은 영원한 것이요, 열반은 행복이며, 여래는 언제 어디서나 참 나로 존재하며, 여래의 바른 법은 청정한 것이다.”

<장아함>의 말씀에서 우리가 가장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부처님은 열반을 성취함으로써 태어남과 늙음과 병듦과 죽음을 모두 초월하여 완전한 행복에 도달하였다는 사실이다. 부처님께서 도달하신 그 열반의 경지는 영원하고 행복하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참 모습이다. 청정하다는 말은 일체의 어떠한 욕망이나 무지가 전혀 없어 완전무결하다는 뜻이다. 거듭 말하지만 이는 무지를 타파하여 욕망이 극복됨으로써 가능한 경지이다.

또한 우리는 지금 부처님께서 남기신 말씀을 따라 언어와 개념으로 열반을 논하지만 사실 이 경지는 오로지 체험으로만 도달할 수 있다.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 그러한 경지가 가능하다는 것을 사실로 믿을 뿐이다.

그러나 열반이 죽음마저도 초월된 어떤 경지라 해서 아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무엇은 아니다. 열반은 기독교가 말하는 육신의 부활에 이은 영생(永生)이나 도교가 말하는 장생불사(長生不死)가 아니다. 도리어 초기불교는 육신의 죽음이야말로 완전한 열반(無餘涅槃)이라고 생각했다.

결국, 열반은 소유와 영원이 도무지 불가능하다는 세계와 인간의 참 모습(實相)을 투철하게 깨달아, 그 결과 욕망으로부터

자유롭게 됨으로써 성취하게 되는 완전한 마음의 평화, 즉 절대적 행복인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오로지 깨달음이라고 하는 체험으로써만 도달할 수 있다.

붓다는 열반이라고 하는 완전한 행복의 경지를 몸소 보여줌으로써 인간을 향한 무한 신뢰와 희망을 선사하신다.

교리 공부:

완전한 행복으로 가는 길, 팔정도 “열반으로 가는 구체적 실천의 길”

인생은 결국 고통이고, 고통의 원인은 무지에 의한 소유와 영원에의 욕망이다. 그러나 이를 투철하게 깨치기만 하면 완전한 행복을 성취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완전한 행복인 열반, 즉 ‘죽음 앞에서마저 흔들림 없는 완전무결한 마음의 평정’은 어떻게 이루는가? 부처님은 이 궁극적 행복으로 가는 여덟 개의 길을 제시하신다. 팔정도는 열반으로 가는 여덟 개의 길이다. 팔리어 ‘아리요 아탕기꼬 막가(Ariyo atthangiko magga)’는 그대로 번역하면 ‘여덟 가지의 거룩한 길(八聖道)’이다. 팔정도가 ‘행복으로 가는 길에 관한 거룩한 진리’로 제시된 것은 이것이 괴로움의 원인을 제거하는 구체적 방법이기 때문이다. 팔정도는 열반으로 가는 구체적 실천의 길인 것이다. 그러나 팔리어 원어가 복수가 아닌 단수로 쓰인 사실은 여덟 가지 실천 수행이 각각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여덟 개의 가지를 가진 한 나무처럼 통합적인 실천 법임을 말하고 있다.

바르게

보라는 정견(正見: Samma-ditthi)은 그 가운데서도 핵심이다. 사실 바르게 보기만 한다면 이어 나오는 모든 실천은 자연스럽게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반대로 바르게 보지 못한다면 아무 것도 제대로 이루어 질 수가 없다. 정견은 옷을 입을 때에 첫 단추를 꿰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그래서 부처님은 ‘비구들이여, 정견은 (내 가르침의) 시작이다’라고 하셨다. 나머지 일곱 실천은 정견이 전제 되어야 제대로 실천될 수 있다. 정견에서는 ‘보다(ditthi)’보다도 여덟 가지의 실천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바르게(samma)’의 내용이 훨씬 중요하다. 바르게 보라는 것은 그르치게 보지 말고 올바르게 보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그르치게 보는 것은 어떤 것이며 올바르게 보는 것은 어떤 뜻인가? ‘바르게’와 ‘그르치게’의 구체적 내용은 우리가 불교로 살아가는 한 끝없이 반복해서 되새기지 않으면 안 될 진리이다.

우리는 세계와 인간을 그르치게

보아, 즉 잘못 알고 착각하여 그 무엇을 소유하거나 영원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세계와 인간의 참 모습(實相)’을 ‘그르치게 알기(無明)’ 때문에, 그것을 ‘소유하려거나 영원케 하려는(取着) 헛된 노력(業)’에 몰두한다. 반대로 세계와 인간에 대해 바르게 본다는 것은 일체 존재와 현상은 자성이 없어 마치 흐르는 물처럼 찰나찰나 변하기 때문에 결코 소유할 수도 영원케 할 수도 없다고 보는 것이다. 세계든 인간이든 모든 존재는 순간순간 변하면서 흘러가는 요소들의 ‘연속적 흐름(相續, samтана)’의 현상으로서 아무런 자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흐름 속에는 항존하거나 자존적인 실체는 결코 없다. 그러므로 도무지 취착할 대상이 없는 것이다. 이를 모르고 소유와 영원을 향한 갈망(渴愛)으로 취착하려드는 망상이 바로 그르치게 보는 것이다. 정견의 표현을 그대로 따르면, 바르게 본다는 것은 사성제와 연기법을 확실히 꿰뚫어 아는 것이다. 네 가지 거룩한 진리와 일체 존재는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생겨나고 소멸한다는 진리를 확실히 분명하게 깨달은(確徹大悟) 사람은 소유와 영원에 대한 헛된 집착(取着)과 노력(業)을 버리고 완전하고 영원한 대자유를 얻는 것이다.

완전한 행복으로 가는 여덟 가지 실천은 그 첫 번째 길인 정견(正見, Samma-ditthi)이 분명하게 확립되면 나머지 일곱 실천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물론 정견이 확립되지 못한다면 나머지 일곱 실천은 제대로 이행될 수가 없다. 완전한 행복으로 가는 여덟 가지 실천은 ‘네 가지 거룩한 진리’와 ‘일체 존재는 원인과 조건에 따라 생겨나고 소멸한다’는 진리를 분명하게 깨치는 데서 시작한다.

사성제와 연기법을

터득하여 정견을 확립한 사람은 정사유(正思惟, Samma-sankappa) 즉, 바른 생각 혹은 바른 마음가짐을 실천할 수가 있다. 정견을 확립한 사람은 탐욕스런 마음, 성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을 내지 않고 베풀려는 마음, 자비스런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갖는다. 앞서 말한 대로, 정견을 확립하여 지혜로워진 사람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소유하거나 영원케 할 수 없음을 알기에 탐진치로부터 자유롭다.

사성제와 연기법을 터득함으로써

정견을 확립하여 지혜로워진 사람은 정어(正語, Samma-vaca) 즉, 바른 말을 한다. 사성제와 연기법을 알지 못해 어리석은

사람은 이기심에 사로잡혀 거짓말(妄語), 이간시키는 말(兩舌), 욕하는 말(惡口), 꾸며대는 말(綺語)을 한다. 그러나 정견을 확립한 사람은 남을 위해 진실한 말(眞實語), 화합하는 말(和合語), 부드러운 말(柔順語), 곧고 순박한 말(質直語)을 한다. 사성제와 연기법을 몰라 어리석은 사람은 이기심에 사로잡혀 남을 헐뜯는 말, 할퀴고 꼬집는 말, 쓸데없는 말을 하는 대신에, 지혜로운 사람은 남을 위해 칭찬하는 말, 위로하는 말, 꼭 필요한 말만을 한다.

사성제와 연기법을 터득함으로써 정견을 확립하여 지혜로워진 사람은 정업(正業, Samma-kammanta) 즉, 올바른 행동을 한다. 반면에 사성제와 연기법을 몰라 어리석은 사람은 이기심에 사로잡혀 생명을 해치고(殺生), 남의 것을 훔치며(偷盜), 사된 성생활(邪淫)을 한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남을 위해 생명을 해방시키고(放生), 물질과 가르침과 위안을 베풀고(布施), 깨끗하고 정당한 성생활(淨行)을 한다.

사성제와 연기법을 터득함으로써 정견을 확립하여 지혜로워진 사람은 정명(正命, Samma-ajiva) 즉, 올바른 방법으로 생활을 유지한다. 정견을 확립한 사람은 정당한 방법으로 의식주를 마련하는 것이다. 반면에 사성제와 연기법을 몰라 어리석은 사람은 이기심에 사로잡혀 남을 속이고 해치고 빼앗아 자신의 의식주를 충당하려 한다. 사성제와 연기법을 알아 지혜로운 사람은 남을 해치는 어떠한 물건이나 방법도 만들지 않고 팔지 않는다. 초창기 불교와

경쟁관계에 있던 자이나고는 직접 생명을 해치는 직업은 물론 그와 관련된 도구를 만들거나 교역하거나, 사람의 정신을 혼몽하게 만드는 물질을 만들거나 교역하는 등 그릇된 직업에 종사하는 일을 엄격하게 금지하였다. 그 결과 그들은 그런 직업과 상관없는 금융업 등에 종사함으로써 소수 인구이면서도 현재 인도에서 경제적 상위 그룹에 속해 있다. 어떤 이들은 남을 해치는 직업에 종사하면서 여러 궤변으로 이를 합리화하고 변명하려 든다. 그러나 이점에 관한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은 너무도 명백하여 이설이 있을 수 없다.

스님의 정년

스님에게도 정년이 있다. 70 세라 한다. 법원이 그렇게 판결했다. 생소하게 들리지만 엄연한 사실이다. 스님의 정년결정, 그 연유는 이러하다. “승용차를 타고 가던 스님이 교통사고를 당했다. 뒷좌석에 타고 있었지만 사고가 컸던 탓에 팔다리가 심하게 마비됐다. 수행과 좌선, 독경과 포교 같은 일체의 종교 활동은 물론, 사찰에서 틈틈이 기술을 갈고 닦았던 도자기 공예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다. 피해 스님은 이런 피해를 배상하라며 가해 차량이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다른 교통사고 소송의 경우처럼 승려라는 직업의 정년을 몇 살로 볼 것인가가 쟁점이 됐다. 피해배상액수 산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고심 끝에 승려의 경우 70 세를 적정한 정년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평균수명이 늘어났고, 피해 스님이 주지로서 직접 절을 운영한 점을 고려할 때 의사와 같은 자유전문직의 정년인 65 세보다는 길게 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지난 5 월 24 일 MBC 뉴스)

정년이 무언가. 사전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관청이나 회사 등에서 공무원이나 직원,종업원들이 일정한 나이에 이르면 근무하던 직에서 물러나도록 정해진 그 나이”라고. 정년은 업무의 효율, 인력수급의 원활, 경영합리화 등을 고려하여 정해지는 걸로 알고 있다. 보통 직장인의 정년은 평균 60 세

전후다. 학자나 전문직은 고도의 정신력과 기술, 그리고 경륜 등을 감안하여 60 세가 넘는 연령까지 정년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요즘은 직업에 대한 생각이 전보다 많이 달라졌다. 이른바 천직(天職)개념보다 개성과 자기욕구 성취에 무게를 더 두는 편이다. 그래서 한 직장에서 정년을 맺는 경우가 크게 줄었다. 또한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정리해고’라는 용어도 흔치않게 보고 있는 실정이다. 스님은 굳이 직종으로 따지면 성직자라 불린다. 그러나 사회법이 아닌 절집 법에 의하면 스님에게 정년은 없다. 오도(悟道)가 정년이요, 열반이 정년이기 때문이다.

-불교신문에서 발췌-

법회소식 NEWS

- 양력 8월 27일 (음력 7월 15일)은 백중 (우란분절)입니다. 불국사에서서는 양력 8월 넷째주 일요일인 8월 26일날 백중 (우란분절) 천도 제사를 올립니다. 이날 선망부보, 일가친척, 수자영가등 인연있는 모든 영가님들을 위한 기도를 봉행합니다. 우리 전통 명절인 백중. 우란분절은 신라와 고려시대부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참여하는 그야말로 성대한 날이었습니다. 특히 이 날은 불교의 5대 명절중 하나로, 조상님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효행의 날이기도 합니다. 목련존자의 효심에서 비롯된 우란분절, 부처님께 공양올리고 정진하며 조상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기를 기원합니다. 이 날은 목련존자가 지옥에 빠져 고통 받는 어머니를 위해 덕이 수승한 스님들께 공양 올려 그 범력으로 해탈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신 날로, 미혹에 사로잡혀 거꾸로 매달린 듯 고통 받으며 악도를 헤매는 수많은 중생들을 해탈시키는 날입니다
우란분절에 보면 일년에 한번 백중날 지옥문이 열린다 합니다. 우란분절을 기려 저희 불국사에서서는 지극한 믿음으로 효도를 실천하고자 살아 계신 부모님과 돌아가신 조상·친족 및 유자령(流子靈:유산된 태아의 영혼)영가 및 지난 일년간 알게 모르게 원결을 짓게된 모든 짐승 및 벌레 영가들도 극락왕생할 수 있도록 천도기도를 올립니다. 즉 부모의 공덕과 삼보의 공덕을 기리며 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면서 그 위신력을 빌어 중생이 지은 악업의 무거움을 구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란분절 천도제는 출가자의 수행 공덕과 보시자의 공양 공덕이 함께 어우러졌을 때 어떤 악업의 중생도 구제될 수 있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근거한 전통 의식인 것입니다. 삶속에서 보살행을 실천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법사가 되어 널리 이웃에게도 선망조상 및 유주무주 고훈 영가천도의 귀중함을 권선 하시고 이웃과 함께 불사인연 나누시어 나와 내가 함께 성불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어 그 인연 공덕으로 무량 복락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불국사와 인연있는 모든 신도님들은 빠짐없이 기도에 동참해 주십시오.
백중기도 동참비는 \$50.00 (한국에서 동참하시는 분은 오만원 입니다.) 입니다만 경제 사정상 어려운 신도님들은 회장님이나 총무님과 상의 하셔서 기도비를 절충해 주십시오.
- 7월 둘째주 일요일에 Forest Park 에서 가진 야외법회는 많은 신도님들이 여러가지 준비해 주시고 동참회 주셔서 법회를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야외 법회를 준비해 주시고 법회에 동참해 주신 신도님들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7월 신규 인등 기도 동참자: 313번 무자생 효담 최운섭, 314번 문수자 김경애, 315번 법산 최찬이, 316번 법등 최창민, 430번 갑진생 Mark Miller, 431번 Seonyoung Kim, 432번 정묘생 방동현, 434번 정해생 무상 이순오, 434번 무오생 이장원, 435번 정축생 김야모, 436번 을사생 손영찬, 437번 경술생 김효진, 438번 정축생 손명욱, 439번 기묘생 손해림, 440번 손명호.

인등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등기도는 매달 2째주 일요일에 있습니다. 인등 기도에 동참하신 불자님들은 꼭 법회에도 참석해 주십시오. 부득이한 사정으로 법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불자님들께서는 집에서라도 마음과 몸을 정갈하게 갖고 가정에서라도 꼭 기도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부처님을 모시는 가람을 지으면, 그가 후세에 태어나는 곳마다 지혜와 복덕이 구족하다고 하셨습니다.

동서를 막론하고 중생들은 사바세계가 혼탁하고 탁류가 거셀수록 부처님의 자비하신 참모습을 그리워하고 그 정신대로 살고자 더욱 간절한 원력을 세웁니다. 또한 물질과 마음의 정서가 어지러운 세상일수록 마음의 교양과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담당해 줄 곳을 찾기 마련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불교인구가 그것을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방면의 불교 포교를 위해서 법당과 선방 건립에 필요한 한 평 불사 인연에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자비심이 지극하신 분들의 정성으로 이룩된 붓다나라 템플은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 불국도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희망차고 기쁨에 찬 수행처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지은 이 인연공덕으로 불자님의 가정마다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여 자비의 문이 열리고 이 세계가 불국정토 되기를 합장 발원합니다.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 모니불.

-7월 한 평 불사 동참자: 병자생 한정언

불사 동참을 원하시는 불자님들께서는 불국사 회장님이나 총무님, 또는 불국회 회장님 및 불국회 두분 총무님께 연락 주십시오.

Buddhanara Temple (불국사) 불자님들 주변의 소식을 접수 받습니다. 기쁜 일은 서로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픈일은 같이 나누면 반으로 된다는 부처님의 자비 사상에 입각해서 불국사 (Buddhanara Temple) 가족들의 경조사를 같이 나누었으면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매주 일요일 정기법회에는 꼭 참석하시어 항상 새로운 마음의 발심을 일으키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불 합시다.